
중앙아메리카의 탈주

알베르토 프라디아

기자

원제와 출처: Alberto Pradilla, “Centroamérica huye de sí mismo?”,
Nueva Sociedad, No. 284, noviembre–diciembre de 2019, pp. 46–52.

핵심어: 카라반, 이주, 폭력, 미국, 멕시코

3월 초에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에게 전화했다. 그녀를 알게 된 것은 온두라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산 페드로 술라 시의 리베라 에르난데스 구역이었다. 단층으로 된 작은 집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집들 사이의 길은 포장되지 않았고 잡초가 무성했다. 이 구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마치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과 같은 가난이 아니다. 이 구역은 여러 조직 폭력배들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장소였다. MS(마라 살바트루차)와 바리오 18이 대표적인 조직이다. 세 번째 집단으로는 올란차노스가 있고, 또 다른 세력으로는 테르세레노스가 있다. 이 지역에서 조그만 영역이라도 관할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조직들이 7개나 된다. 이 전쟁은 석유를 위한 것도, 금을 위한 것도, 콜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나에게 전화한 여성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한 삶을 갈취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리베라 에르난데스의 작은 교차로에 있는 모퉁이에는 탄흔이 나있고, 페인트로 지워진 몇 개의 MS 플라카소¹⁾가 있다. 페인트와 탄흔은 실상 동일한 것들이다. 즉, 전쟁의 상처들이다. 페인트를 칠하고 충질을 했던 사람들은 권총을 든 거의 어린애들에 가까운 청소년들이었다. 빈곤의 살인청부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그 누구도 살인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악을 저지르는 유전적인 성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 굶주림, 가족의 방기, 보호 대신 사주하는 정부, 미래에 대한 절망만이 존재할 뿐이다. 빈곤은 가능성들을 제약한다. 따라서 다른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의 선택이 되기도 한다.

한 여성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한 소년이 살해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 산 페드로 술라의 다른 지역처럼 리베라 에르난데스에서 사람들은 입은 옷만 챙겨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고, 집들은 마치 전쟁터처럼 버려졌다. 7년 전 그 소년 가족 역시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라 세이바에 정착했지만 범죄 조직원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 소년은 자기 앞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살해하는지를 직접 지켜보아야만 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그를 노릴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될 지 불확실했지만 혼자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소년은 다른 많은 청소년들이 했던 방법을 마찬가지로 따라 했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통과하는 것 즉, 라 베스티아라

1) 특정 조직을 표시하는 이름이나 기호 등을 나타내는 그래피티 형태

고 불리는 기차에 올라 타는 일이었다. 그러나 운이 나빠서 그는 발을 잘 못 디뎠고, 기차에서 미끄러졌다. 기차에서 떨어진 그는 라 베스티아, 혹은 죽음의 기차에 끌려 들어갔고,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찾아와 달라고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 소년의 엄마가 그 소년을 다시 데리고 오길 원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과 11월에 멕시코를 지나갔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 소년 사이의 차이는 가시성이다. 언론이 중앙아메리카인들의 대규모 이주에 주목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 언론이 여러 주 동안 밤낮으로 모든 여정동안 동반 취재했던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점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요테²⁾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위험한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납치, 살해 강간 등의 범죄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노출로 인해 그들이 다시 범죄의 목표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멕시코난민구조위원회의 전체 코디네이터가 최근 나에게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이 위원회는 멕시코 내 난민 수용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그에 따르면 도움을 원하는 신청자의 다수는 카라반과는 다른 루트로 도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혐오적인 태도가 카라반 기간 동안에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여성은 나에게 전화했고,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선은 의족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족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나는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 그녀 혹은 그 소년의 엄마는 상황이 더 나빴다.

이주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우리들의 어느 정도 안

2) 불법으로 국경을 넘게 해주고 비용을 챙기는 사람들(역주).

온한 삶에 비해 끔직한 삶을 감당하고 있는 약한 인간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꺾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모습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 적어도 카라반이 언론을 타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들에게 약탈과 납치를 막을 수 있는 슈퍼맨의 망토와 방탄조끼를 건네주는 것 같았다. 그들과 시간을 공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점차 우리들은 연대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들은 테구시갈파에서 누군가가 보내온 약소한 30달러를 대신 찾아주기 위해 엘렉트라에 줄을 서곤 했다. 우리는 신분증이 있었지만, 수취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충전지가 마모될 때까지 핸드폰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핸드폰을 우리 호텔에서 충전해 주었다. 또한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들을 찾아야 했다. 담요를 모았고, 가능한 모든 음식을 분배했다. 커피나, 아침식사, 점심 등을 구매해야 했다.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의 동료와 함께 차를 몰고 가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차에 태워주기도 했다. 어린애들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차 안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우리를 마치 그들을 속이는 장기밀매업자처럼 쳐다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단연코 우리가 주지 못했던 것이 있다. 헛된 희망이었다. 사람들은 수천 번씩이나 나에게 트럼프가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수천 번 아니라고 답했다. 백 만년이 지나도 결단코 아니라고 말이다. 오히려 땅이 열리고 거기로 부터 불사다리가 솟아올라와, 이 불사다리를 타고 장벽을 넘어가 그 외국인혐오자가 굶주린 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꼴을 보는 것이 오히려 빠를 거라고 말했다.

나는 결단코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그들에게 희망을 부추기지 않았다. 게다가 내 말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도 없었다. 이들은 고향에 전 재산을 두

고 길을 떠나, 자신들을 거부하는 나라로 가고자 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이들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임금이 낮아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를 그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게다가 이 일에 만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궁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다. 왜냐면 이 허접한 일자리도 온두라스, 과테말라 혹은 엘살바도르에서 그들이 원했던 어떤 직업보다도 수천 배 좋기 때문이다. 대규모 이주는 중앙아메리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이 포기했다고 말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또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행위는 자본주의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발견하기 위해 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에 개입해왔지만 이제는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쿠데타를 도모했고, 대통령들을 갈아치웠고, 잔혹한 군부와 여전히 더 잔혹한 준군사조직들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모든 것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은 장벽을 세워, 중앙아메리카 인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서로 죽이게 두는 것이다. 중앙아메리카에서 혁명적 사유는 사라졌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즉, 누군가가 노력한다면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열심히 일한다면, 일자리를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럼 “내 것은 어디에 있지?”라고 되돌아서서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UN에 따르면 매년 40만 명의 중앙아메리카 인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시도한다. 미국과 멕시코를 나누는 상상의 선위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의 관중수보다 무려 7배 반이나 많은 수가 좌초된 배에 탄 채 놓여 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주를 시도하면서 계속 죽어가고 있다. 마친 진퇴양란에 빠진 상황에서, 보다 안전해 보이는 한쪽을 선택했지만 때로는 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2018년 10월과 12월 사이 카라반에 동참하면서, 수십 명의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조직원으로 끌고 가려는 범죄 집단을 피해서 떠난 청소년들, 마약상과 협력을 거부했던 사람들, 남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은 여성들, 피아를 알 수 없는 전쟁에서 이웃, 부모, 형제들이 어떻게 주위에서 죽어갔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이다. 물론 모든 중앙아메리카 인들이 폭력을 피해서 떠난 것은 아니다. 폭력이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이다.

가난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또 다른 폭력이다. 자식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잠을 자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고작 콩과 토르티야 정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앙아메리카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중앙아메리카를 충격으로 죽이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메리카는 탈주하고 있으며 아마도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현명한 물음은 정부들이 어떻게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게다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트럼프와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후에도 이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멕시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두 나라의 국경 이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9년 1월 15일 새로운 카라반이 산 페드로 술라를 출발했다. 일주일 후 멕시코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과테말라의 도시인 테쿰 우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만 명을 넘기는 숫자로 불어있었다.

몇 달 전과 비교해 모든 것이 변했다. 곤봉과 최루탄 대신에 지금은 물병이 제공되고 있었다. 과거에 관료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했던 이민국 공무원들이 제공한 것이었다. 최루탄과 비명 대신에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이주

희망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권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주희망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서류에 등록을 하면 인류애적인 명목으로 방문자 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비록 계속 갱신해야 하지만, 이 서류가 있으면 멕시코에 일 년 동안 자유롭게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수십 년에 걸친 중앙아메리카인들의 이주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고 있는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앙아메리카인들의 미국행을 가로막았던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가 우리들 눈앞에서 없어지고 있는가? 당면한 인류애적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가 아니면 국경에 서있는 중앙아메리카인 누구나 동일한 조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리고 엘살바도르부터 이어져온 코요테들의 거래가 종지부를 찍게 되는가? 미국을 향한 이주자들을 이동시키고 돈을 벌어난 범죄 조직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는 당시 멕시코가 추방한 사람들, 미국이 거부한 사람들, 처음 행진에 참여한 이주희망자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미국으로 이동해 본 사람들과 함께 다리 위에 같이 있었다. 이들 중 멕시코의 시혜적인 조치에 대해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였다. 내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으로 계속 가고자 했다. 신문기자들, 이주자들, 활동가들 모두는 놀란 채 서로를 쳐다 보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수반으로 한 멕시코 새 정부가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곤봉으로 막던 것과, 생수를 지급하고 정상화를 약속한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복잡적이었다. 당분간 멕시코 정부가 약속한 카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전체가 아니라 오직 로돌포 로블레스 다리에서만 발급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단체로 도착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정상화 방안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을까? 이 정책은 또한 핵심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었다. 즉, 고국을 떠난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미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멕시코 당국이 아무리 멕시코도착을 환영한다고 말할 지라도, 그들의 목적지는 미국이었다. 따라서 카드는 이민국 공무원들이 그들을 체포할 수 없게 하는 일시적인 보증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분노에 기름을 더 붓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의도한 바는 입에 발린 말로 미국으로 이주가 제일 좋은 선택인 것은 아니라고 설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자 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그의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 국경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통령은 티후아나 같은 도시들이 피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것은 멕시코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백악관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트럼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자신의 공격성과 변덕스러움을 바꾸지 않았다. “무관용 원칙” 기간 동안 저질러졌던 가족의 생이별과 같은 잔혹한 행위들이, 판사가 결정을 하는 동안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조치들로 이어졌다. 이것은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이 미국 공무원이 국경을 건널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폭력이 난무한 도시들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들은 망명을 원했지만 신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티후아나에서 살해된 호르헤 알렉산데르 루이스 같은 사례들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보다 잔인한 역설이 나타난다. 트럼프와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서로 적대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미국으로의 비정상적인 이주를 끝내는 것 말이다. 오랜 기간 동안 멕시코는 미국의 진정한 남쪽 국경 역할을 해 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앙겔 샘의 명령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은 서로 달랐다. 멕시코가 사실상의 “안전한 제3국”이 되는 데에는 일정한 위험이 있다.³⁾ 로페스 오

브라도르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거부한다. 그러나 남부 지역의 발전 계획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중앙아메리카인들이 계속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는 미국이 추방한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좌파 정부가 미국의 억압적인 이주정책에 동의하여, 긴 중앙아메리카인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움직임에다가 우려할만한 두 가지 경향이 더해진다. 미국과 멕시코 내에서 활동가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의 증가 말이다. 샌디 에고의 NBC 방송국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라반에 참여한 기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들 중 몇몇에게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동안에 멕시코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2019년 초 멕시코 내의 다른 카라반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을 억압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체포되어 온두라스로 추방되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 정부의 이주 모델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들을 억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지 않았는가? 2019년 1월 말 테쿰 우만 지역에서 카드 발급을 기다리던 이주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던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이주자들이 레게톤 춤을 추었고, 술을 마셨으며, 마약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몇 달 전 티후아나의 외국인혐오자들이 주장하던 것과 같은 논리였다. 미국에서 늘고 있는 인종주의적인 주장이 멕시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과테말라까지도? 이주자들은 이중적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착한

3)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자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했을 때, 이 국가는 이 신청자 수용을 거부하고 이 신청자에게 동일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일을 하며, 큰소리를 내지 않아야만 하는가? 2018년 10월 출발한 카라반은 그 간 보이지 않던 이주자들을 정치적 의제가 되게 만들었다. 또한 범죄 조직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멕시코를 지나가는 여정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즉, 2019년 3월 치아파스에서 번호판 없는 트럭의 사고로 25명의 과테말라인들이 사망한 사건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을 이동시켜주는 조직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이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내 경우처럼, 국제적십자와 연락해 의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얻으려고 한 사제와 이야기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지 않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것은 허접하고 개인주의적인 해결책으로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들이 제공해야 할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해결책은 하나의 보조물이다. 즉, 걷는데 도움을 주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계속되는 상황의 악화에 맞서 개인적인 결심-개인적인 결심들-이 남게 된다. 왜냐하면 이 좁은 구역을 두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무려 7개의 범죄조직이 있는 리베라 에르난데스와 같은 지역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혹은 파니 부인의 가족을 피흘리게 하는 수아소 코르도바 같은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살해 위협 속에서 네 번이나 강탈을 당했던 월터 코에요의 회사 같은 택시 회사들도 계속 존재한다. 혹은 거리에서 야채를 팔기 위해 임대료를 내야만 하는 케빈의 가족처럼 가난한 일상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중앙아메리카의 현실로, 생존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상처받은 대지이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받은 충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난 보따리만

으로 살 수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어떤 다른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눈물나는 현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카라반에 참여할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성훈 옮김